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4·3예술 기록보관소의 필요성

다시 4월이다. 4·3전야제를 전후로 4·3미술제, 4·3예술축전 등 4·3을 기억하려는 크고 작은 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4·3예술은 4·3을 잊으라는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희생자의 아픔을 달래며, 4·3 진상규명 운동과 함께 해 왔다. 그런데 4·3예술의 중요성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만 있지 않다. 예술가들은 4·3을 알리면서도 예술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결과 4·3예술은 4·3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예

술성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단지 4·3을 알리는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각 예술 분야마다 뛰어난 작품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4·3예술의 역사는 제주 예술의 역사이기도 하다.

4·3예술이 이처럼 사회사와 예술사 모두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거나 연구되지 않았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 외에 4·3예술 중에서 연구된 작품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작품이나 관련 자료를 필요할 때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나마 시나 소설은 서점에서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지만, 한번 공연을 올린 음악이나 연극 등의 작품은 다시 공연되기 어렵다. 영화도 다시 상영하지 않는 이상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미술의 경우에는 전시했으나 소실되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작품도 있다. 작품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데 연구는커녕 4·3예술을 제대로 아는 것도 가능할 리 없다.

의미 있는 작품인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아니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전 작품을 다시 공연, 상연, 전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연은 CD나 파일 등을 수집하고, 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주요 작품을 수집하고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원하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여기에 작품과 관련된 자료가 같이 모여있다면 4·3예술을 알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4·3예술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4·3예술을 알리고 연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4·3예술 기록보관소가 필요하다. 이때 기록보관소는 물리적인 장소도 중요하지만, 4·3예술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4·3예술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작년에 진행되었으나, 올해 예산 문제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보관소를 만들자는 의견은 무모해 보이기가까지 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예산도 많이 든다. 그러나 작품이 사라지고, 잊히고 있다. 따라서 기록보관소 구축이 힘든 작업이라 하더라도 뜻과 지혜와 힘을 하루빨리 모아야 한다.

사설

인구위기 맞기 전에 미리 대책 강구해야

제주지역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제주도 저출생 여파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머잖아 닥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 혼인 건수도 갈수록 줄고 있어 제주인구가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인구가 7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주민등록인구 67만3103명과 외국인 2만6148명 등 69만9251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전년보다 226명이 늘었으나 주민등록인구는 562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2900여명이 감소한 67만5000여명에서 매달 타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

인구는 지난 1월만 해도 70만13명으로 가까스로 70만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외국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인구는 줄면서 70만명대가 무너졌다.

제주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제주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2021년 이후 도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다. 제주지역 인구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 본격화된 인구 순유출은 이듬해 한 해 동안 1687명에 달했다. 게다가 도내 혼인 건수 역시 크게 줄고 있다. 2016년 370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2614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영향으로 2017년까지 5000명대였던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3200명대로 대폭 줄었다. 따라서 제주의 인구소멸이 더 빨라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열린마당

푸른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플로깅



김찬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우리의 터전이자 관광지인 제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렵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행 중인 바다 환경지킴이 제도가 있다.

바다 환경지킴이 공백 기간 문제점을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통해 제주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강도 챙기며 청정 제주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저 길을 걸으면서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을 나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제주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작은 활동부터 부지런히 실천해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 친구와 또는 혼자서라도 '플로깅'을 통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3월 30일 제주의 '관꽃'에서의 해변 플로깅 경험을 통해 현재 제주의 해변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 인지 깨닫게 되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제주 해변을 덮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봉사 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해 우리는 해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플라스틱, 스티로폼, 그물, 끈 등 다양한 쓰레기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것을 느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공약사항, 적극적 법률해석·협업 필요"

오 지사, 도전·변화 주문

주민 주도적 역할 당부

○...오영훈 지사가 15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관련 "현행 법률에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해서 법 추진 말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로 도정이 시도하는 담대한 도전과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임기 내 7조 7576억원을 투자해 102개 공약 사업을 추진.

오 지사는 "헌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면 바뀌어야 하는데, 임무 분장대로만 하면 협업과 융합을 할 수가 없다"며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더 많은 성과 창출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이 15일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4 에월을 살리기 SNS 홍보 프로젝트 캣츠 온 에어(Let's On Air) 에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지역 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

에월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5일까지 총 15회의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 부시장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역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주민들이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회용품 제로 주간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돼

제주도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앞으로 매월 셋째 주를 1회용품 없는 주간으로 설정했다. 지난 3월 수립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에 따라 도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도의회, 행정시 등이 동참하게 된다. 1회용품 제로 주간에는 종이컵, 물티슈, 투명페트병 생수 등을 포함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공식, 비공식은 물론 공공기관 근무자나 민간인 대상 모든 회의, 행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춰볼 때 제주도가 1회용품 제로 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는 1회용품 제로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도면은 좁은 섬 지역에 한 해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밀려들자 지역 자생단체와 우도

초·중학교, 우도면 등이 지난해 협약을 맺어 1회용품 사용 없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달 27일에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5대 환경실천 약속과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1회용품 제로 주간을 계기로 이 같은 사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제주도는 1회용품 제로 주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내 모든 회의, 행사 시 전면 사용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까지 파급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1회용품 제로 주간이 보여주기식 차원에서 머물러선 안된다.

부고
현은택 어머니 제주양씨 영일(前 한국 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여성부회장·향년 67세)께서 서기 2024년 4월 13일 오후 11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4년 4월 16일(화요일)
▶발인일시: 2024년 4월 17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해안동 선영

청산 및 채권 제출공고(1차)
채권자 제위
당 법인은 2023년 12월 26일 임시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1월 18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해동양식영어조합법인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3길51
대표청산인 박윤희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척추 허리 골반
중증마비(실어증), 어깨, 엉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험으로 대만족
Snpe, 활력도비술, 정통고려할법전승계승자
대한활법연맹
010-7121-8275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안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트로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2696-987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월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할말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황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황칠나무의 효능
★혈액순환 촉진 ★간기능 개선
★생육 촉진 ★항암·항산화 효과
황칠발효액의 효능
★소화 흡수를 상승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요리시 원액 : 물은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약6시간 이상 침적할경우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음용시 원액 :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황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물 70대 수의사(김상홍)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묘지매매
연동 2488-439
묘지매매(문종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 010-3699-0254